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평가



홍 정 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02-2110-6670 jkhong@me.go.kr

(주요학력)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미국 델라웨어대 졸업

(주요경력)

• '92. 4.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93. 4. 원주지방환경청 및 폐기물정책과

• '96. 8. 기획예산담당관실

• '04. 1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05. 7.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장

• '06. 11.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장

• '08. 3.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9. 2.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지구환경과 국제경제·사회의 큰 흐름이 급변한 지난 1년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왔다.

과거 산업화의 길에 뒤늦게 들어선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13위의 경제규모('07, GDP기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유와 2번째로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CO₂ 배출량 증가율은 98%로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CO₂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책임있는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차치하고서 한반도는 해수면의 상승과 평균기온의 상승이 세계 평균 수준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배럴당 150\$이라는 유래 없는 고유가로 점철되었던 지난 1년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 시기였다. 국제사회는 이제 에너지, 경제, 환경문제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비록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지구적 환경·자원위기 시대에서 화석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투입에 의존하였던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의 본질적 한계 때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최근 UN 등 국제기구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토록 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담수자원, 녹색교통 등 녹색인프라 확충에 공공투자를 집중하라는 권고를 하는 사례와 함께 경제·금융이슈를 논의하던 세계 최고의 회의체인 G20 정상회의의 제3차 회의('09. 9, 미국 피츠버그)에서 기후변화·에너지 이슈를 논의한 사례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구적 환경·자원위기의 여파를 다른 어떤 국가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 후 지난 1년간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녹색성장은 이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비전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부문별 정책목표와 행동계획을 체계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하였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부족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노력으로 최소한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간 정부의 노력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우선 녹색성장은 다양한 정책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Control Tower)로서 녹색성장위원회를 2009년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각 정부조직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할 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그동안 부문별로 추진되었던 녹색성장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종합하고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정책목표, 이행방안, 재정투자계획을 체계화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국민들께 발표하였다. 아울러,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생활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사회의 각계 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수칙도 보급하였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다. 즉, 정부부처 중에서 최초로 부처의 종합적인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발표('09. 1)하였으며 녹색환경정책관의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09. 2)하였다. 녹색성장 비전 선포 직후 녹색성장포럼을 구성하여 비전의 전국적 확산과 정책의 개발 및 정보공유의 장(場)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주도하여 수립('08. 12)하였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08. 12),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08. 10) 및 그 실행계획('09. 7), 범국민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수립('09. 7) 등 분야별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녹색성장은 최소 60년의 미래비전이며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가고 있는 새로운 길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새로운 상황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앞서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의견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표('09. 8)하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장기적인 녹색경제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였다. 세계 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 극복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UN차원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를 주도하는 UNEP는 또한 지난 9월 24일 "Rethinking the Economy Recovery : A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의 녹색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서 '한국은 친환경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이 높고 계획한 투자의 집행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UNEP뿐만 아니라 홍콩상하이은행(HSBC), 독일의 Tages Zeitung 등 국제금융기관과 언론사 등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국가비전으로 채택한 녹색성장이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하는 발전전략이며, 우리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50년 이상이었으며, 반도체 산업에는 선진국보다 20년이나 늦게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들 산업에서 후발주자로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저력과 역동성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은 막대한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전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녹색성장을 주목하고 칭찬을 하는 이유도 한국이 지구적 환경·자원위기 시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녹색성장은 우리만의 발전전략이 아닌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역량의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